

현장시선



김기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주택경기 침체,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제주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3075억원으로 전년 4조 7012억원에 비해 29.6% 하락했다. 제주에서의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 및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높은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미친다.

건설업계 생존 필수 전제조건 적정공사비 확보

하도급사는 물론이고 자재·장비사업자와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효과를 불러와 지역경제는 썩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원책 중 가장 업계에서 고대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공사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이다.

오랫동안 전반적인 물가상승 및 건설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설공사의 실제원가는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공사에 반영되는 공사원가는 현실 경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건설공사비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다보니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큰 농·수·축협,

신탄 등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개인·기업 등 민간공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최저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균형은 공사비 뿐만 아니라 공기,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 채 무조건·무분별한 비용절감에 내몰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 및 인건비에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하다보니 자칫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도급사의 공사비 부담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자재·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에게도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입·낙찰제도 및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가격 기초의 입·낙찰제도에서 벗어나 낙찰하한을 상향 및 가격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발주기관 또한 예산절감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용 미지급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물가변동, 공금 차질, 공사현장의 민원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과 공기 지연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 기획 및 계획, 설계단계부터 적절한 공사비가 산정돼야 한다.

현재 협회는 도 교육청 공사 일위대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한 시공 품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협회가 원만히 진행돼 도내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을 보탬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

역사문화지구사업, 주민 공감대 중요하다

오영훈 도지사의 문화분야 핵심 공약인 (가칭)제주역사문화지구, 제주역사관 조성 관련 사업 대상지인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유지한 채 추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신산공원의 법적 시설물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녹지 공간 축소 우려 등을 감안한 구상안이다. 사업은 역사문화지구와 제주역사관 조성 등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신산공원의 기능을 살리면서 기존 시설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지난 2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상안을 공개했다. 그렇지만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 주민 설문(304명 대상) 결과 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9.5%가 불필요하다(필요하다 40.5%)는 의견

을 보였다. 제주역사관 조성에 대해서도 54.3%가 불필요하다(필요하다 31.6%)고 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운영진과 전문가, 주민들 간 균형을 잡는 것이 과제다.

주민들로서는 원도심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이미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 공간에 공원의 기능을 살리면서 기존 시설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노력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핵심 공약이라 하더라도 주민 공감대 없이는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성산고 특성화고교 복귀 신중에 신중을...

성산고등학교의 한국해양고등학교로 전환과 함께 해양 계열 특성화고교로의 복귀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진학 희망학생 수와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 등 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지고 있는 '성산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가 따르면 지역 특성상 해양계열 특성화고는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기존 해양수산 전통산업 분야의 학과를 유지해 제주 해양수산분야 학과를 강화해야 하고, 신규 유망 해양수산업 분야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해양계열 고교가 많지 않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문제는 해양계열 고교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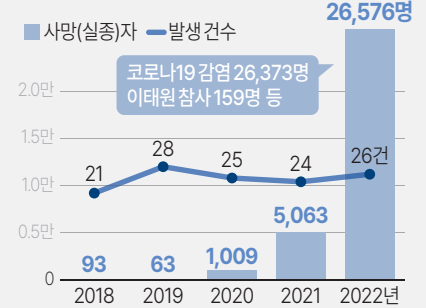
한 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특성화고 전환 후 학생 모집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다. 동지역 인문계고 선호 등 지역 고교진학 특성과 더불어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변수여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진학 희망 수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최근 도의회에서 해양계열 특성화고로의 전환은 우려되는 점이 많아 추가 의견 수렴 및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양 계열 특성화고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선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을 비롯 교육주체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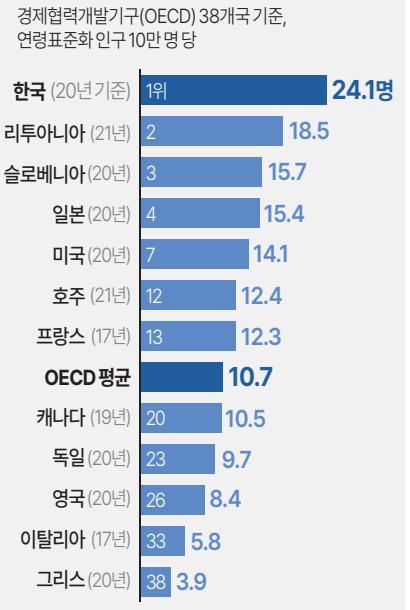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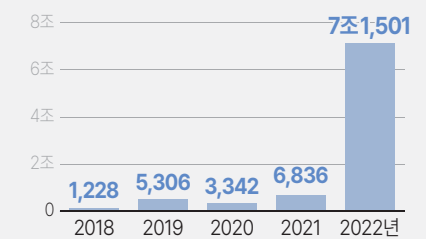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OECD 국가별 자살률



사회재난 피해액



열린마당

수문장 교대의식 보러 목 관아로 오세요



오경미 제주세계유수본부 목관아팀장

제주목 관아에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밤에 정기공연이 개최된다. 이보다 앞서 관덕정 광장에서 불거리 가득한 수문장 교대의식이 진행됐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2002년 목관아 복원 이후 2006년부터 시작된 전통 공연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이렇게 장기간 수문장 교대의식을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매년 봄 경북곡 수문장 임명식에도 초대받고 있는 제주 목 관아의 대표 전통문화 재현 행사이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성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의식으로 사물놀이패와 한국무용수, 수문장, 수문군 등 30여 명이 대거 출연해 흥미진진한 교대의식과 전통무예를 선보인다. 또한 수문장 교대의식 이전에 제주목 관아에서 중앙로, 칠성로 일대까지 거리행진도 펼쳐지는데, 올해 5월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수문군 복장을 한 기마대도 함께한다. 수백년 전 과거의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주목 관아에서의 생생한 체험은 선조들의 생활과 전통 가치에 친근감을 가지는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겐 공감과 이해를 전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제주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목관아와 관덕정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주는 수문장 교대의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주말을 빛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발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망 전영식(1961. 2.18.생). 최후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2길 12, 504동 1004호(노형동, 부영아파트). 상속인: 망 전영식의 5월 1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4년 4월 22일 제주지방법원 2024년 단 1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전화: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전화: 782-3644, 010-4690-3636

황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황칠나무의 효능: 혈액순환 촉진, 간기능 개선, 생육 촉진, 항암·항산화 효과. 황칠발효액의 효능: 소화 흡수를 상승,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황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문의전화: 010-5169-4520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압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전화: 753-0404 FAX: 751-0045

묘지매매. 연동 2488-439 묘지매매(문종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전화: 010-3699-0254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제주초특영농조합법인. 전화: 010-3119-3820, 010-2696-987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